



천관산 자락 별 아래서 공연 보고 시골버스 타고 문화유산 답사하고

장흥서 즐기는 '문화 호사'

30일 부산면 '동백정' 여행...내달 5일 獨 민속예술단 공연



장흥 천관산문화관에서 열린 달구지 콘서트.



김건모 룰라

90년대 무도회장 속으로

'청춘나이트 2014 콘서트' 내일 DJ센터 김건모·김원준·룰라 등 왕년의 스타 총출동

'잘못된 만남', '날개 잃은 천사', '모든 잠든 후에' 어께가 들썩이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추억을 만들어 보자. 인기 가수 김건모 등 90년대 최고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청춘나이트 2014 콘서트'가 오는 30일 오후 7시 김대중컨벤션센터 신축공연장 다목적홀에서 열린다.

지난 2012년 처음 시작돼 전국을 들썩이게 한 '청춘나이트'는 올해 더욱 막강해진 출연진과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라이어티 리믹스 형식의 콘서트로 새롭게 관객들을 만난다.

'Back to the 90's'(90년대로 돌아가라)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히트곡 제조기 김건모를 비롯해 DJDOC, 김원준, 룰라, 현진영 등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한다.

DJ 춘자가 사회를 맡은 이번 콘서트는 특히 공연장을 90년대 무도회장으로 재탄생시켜 140분간 관객들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는 시간으로 꾸며진다.

당초 청춘콘서트는 3040세대가 주를 이뤘으나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응답하라 1997' 등의 인기로 인해 최근 90년대 복고 열풍이 불면서 최근에는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을 아우르며 인기를 모으고 있다. 문의 062-523-03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별빛 쏟아지는 천관산 자락에서 풀벌레 울음소리를 들으며 멋진 무대를 감상하고, 달경거리는 시골 버스를 타고 지역 문화유산을 답사한다. 장흥에서 즐길 수 있는 더 없는 '문화 호사'다.

장흥천관산문화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색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 달구지 타고 가듯, 느긋한 공연=장흥의 대표 문화 공연인 '달구지 콘서트'는 이름 자체가 이목을 끈다. 소 달구지를 타고 가듯 느긋하게 공연을 즐기고, 이곳 간에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무대도 아담하다. 장흥읍 탐진강변 인라인스케이트장 옆에 임시로 무대를 설치하고, 인근의 소리꾼이나 예술인을 불러오아 공연을 하고 있다.

비록 시골 무대지만 매 공연마다 100여 명의 주민이 모여 흥겨운 한 때를 보내고 있다. 지난해 24차례 공연이 열려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풀피리를 불며 깊어가는 밤을 즐겼다.

한승원(소설가), 국근섭(갑성무 춤꾼)씨

와 가수 인디언 수니, 정명석(싱어송라이터)씨 등 유명인의 출연도 잦아 매 공연마다 찾아오는 열혈 팬층도 두텁다. 지난 27일에도 무대가 마련돼 국악신동으로 알려진 유태평씨의 판소리 공연과 가야금, 대금 연주자 결연했다. 흥문예회관전속무용단(단장 마영오)은 '허튼춤'을 선보였다.

누구든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것도 달구지 콘서트의 특징이다. 노래를 듣다 흥이 나면, 자리에서 일어나 풀피리를 불거나 남몰래 다져온 기타 솜씨를 뽐내기도 한다.

이날 공연에서도 이대훈 시인이 동화를 낭독했고, 관산남초교에 다니는 신고구려(3년)군이 무대에 올라 기타를 치기도 했다.

오는 9월 5일에는 추석을 맞아 독일민속예술단의 특별공연이 있고, 같은 달 26일에는 백자, 인디언 수니, 정명석씨 등이 출연해 흥겨운 노래를 선사한다.

◇시골 버스로 떠나는 문학기행=군내 버스 안에서 시골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문학기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장흥에서 즐기는 이색 문화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첫 선을 보인 이 프로그램은 장흥 곳곳의 문학 현장을 군내 버스를 타고

찾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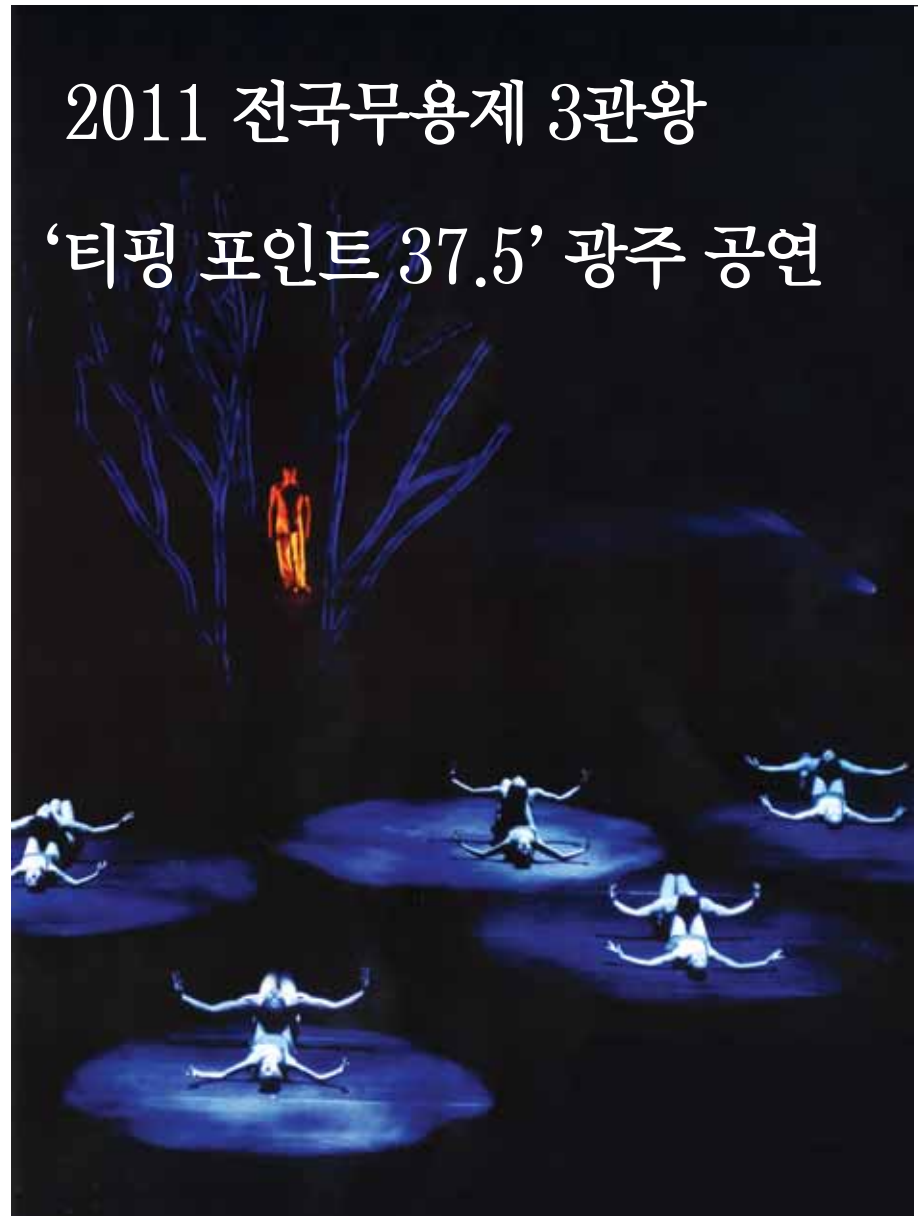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려면 버스 운행 시간에 맞춰 정류장에 모여야 한다. 버스 안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군내 버스 문학기행의 묘미 중 하나다.

지난 7월 26일에는 보림사를 찾았다. 장흥읍에서 보림사로 이어지는 시골길을 달리는 군내 버스 안에서는 불교 미술의 전문가인 장흥군정장 장모창 학예사가 불교 미술

이야기를 들려줬다.

또 함께 여행길에 나선 풀피리 전문가 권형운씨가 즉석에서 풀피리 연주를 했다. 보림사 인근에 조성돼 있는 김삿갓 시비도 찾아 함께 시를 읽으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오는 30일에는 8 정자 중 하나인 장흥군 부산면 '동백정'을 찾아 떠난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2011 전국무용제 3관왕 '티핑 포인트 37.5' 광주 공연

광주로알발레단 내달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9' 출신 김명규 출연

서영무용단 '飛, 허공'·비상무용단 '상처'도



광주로알발레단의 작품 '티핑 포인트 37.5'는 지난 2011년 열린 제20회 전국무용제에서 3관왕(대통령상, 연기상, 미술상)을 차지했다. 수상 작품에 대한 공감이 높았지만 광주에서 만날 기회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다.

로알발레단이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지원사업 단체로 선정되면서 3년만에 '그 때 그 작품'을 무대에 올린다. 9월2일 오후 7시30분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작품에서 말하는 '티핑 포인트'는 인간의 정상 체온인 36.5도를 지나 37.5도에 이르는 그 과정과 순간을 의미한다.

"저를 포함해 많은 이들이 주변을 살피려 들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하나의 끝은 결국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치지만 인생은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또 다른 출발을 준비하는 거죠. 젊은 시절의 좌절과 고뇌를 관통하고 나서야 품게 되는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안무를 맡은 박선희씨는 "백 스테이지에 여유가 없는 등 공연장 여건이 좋지 않아

당초 무대에서 구현하려 했던 모습들이 잘 보여질지 걱정"이라며 "광주 관객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게 될 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번 무대에는 오디션 프로그램 '댄싱 9'에 출연했던 발레리노 김명규(사진)가 주역으로 출연한다. 한국종합예술학교 출신으로 동아무용콩쿠르 대상, 로마국제무용콩쿠르 전체 대상 등을 수상한 김씨는 '댄싱 9' 시즌 1에서 '블루아이'팀으로 출연해 인기를 모았다.

이 작품으로 연기상을 받았던 오윤환씨가 지도를 맡았으며 대본과 연출의 조주현, 무대디자인의 이대업씨 등이 함께했다.

이날 공연에서는 지난해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서영무용단의 신작 '飛, 허공'도 선보인다. 서영씨가 안무한 작품으로 인간의 고독과 괴로움 속에서 꿈꾸는 희망의 메시지를 풀어냈다.

또 비상무용단은 박종익씨 안무로 '상처'를 무대에 올린다. 아이들의 행복을 기원하며 희망과 따뜻한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원. 문의 062-682-3211. /김미은기자 mekim@

고운 빛 청자, 자개를 만났네

제희갤러리 김순희전...내달 2일부터



화병

비취색 청자의 빛깔이 곱기만 하다. 그 위에 오묘한 빛깔의 옷칠이 더해지고, 반짝이는 자개가 맛을 더한다.

제희갤러리(관장 신수정)는 9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청자의 맛을 현대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도예가 김순희씨를 초대해 전시회를 연다. 김씨의 열두 번째 개인전으로 지난 2011년 이후 작가가 오랜만에 광주에서 갖는 개인전이기도 하다.

전시 주제는 '청자-불염(不願)'. 이백의 시 '독좌경정산'에서 빌려온 불염은 '마다하지 않다'는 의미로 아무리 보아도 싫증나지 않는 청자의 매력을 함축적으로 표현해내고 있다.

지난 2007년 90일간의 일본순회전을 시작으로 미국(2008), 유럽(2009), 남미(2010) 등을 순회했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당시 국제 무대에 선보였던 작품들을 재현한 8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미국 워싱턴DC 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는 작품들이기도 하다.

오리, 버드나무 등 물가와 관련된 문양 소재들로 표현된 동양화적인 작품들은 수수하게 다가온다. 또 고려시대 유행했던 고급 청자의 쓰임과 문화, 고려시대 사람들의 취향 등에 조정을 맞춘 작품들은 은은하게 풍기는 색채와 함께 우리 맛의 극치를 선사한다.

특히 서정적인 풍경의 전통 청자문양에 옷칠을 하고 그 위에 자개를 올리는 청자와 칠, 나전의 독창적인 결합은 김씨의 독창적인 기법이다.

목포대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단국대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씨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했다. 문의 062-222-9301. /김경인기자kki@kwangju.co.kr



무형문화재 하선영 초청 '푸르른 날의 연가'

전통문화관 토요상설공연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은 30일 오후 3시 전통문화관 서석당에서 열리는 8월 마지막 토요상설공연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하선영 씨를 초청해 '푸르른 날의 연가(戀歌)'를 선보인다.

공연은 '성곡연류 가야금산조'를 시작으로 단가 '녹음방초', 가야금병창 '춘향가 중 사랑가', 25현 가야금병창 협주곡 '그대가

내 남인가', '아리랑연가'를 들려준다.

가야금병창단 '현의노래' 하선영 대표를 비롯해 단원 이유빈, 이유리, 안민아, 임도화, 배유경, 노아연씨가 출연하며, 장단은 이왕재(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원), 대금연주는 김승호(국악양성품 '놀이판' 대표), 팽과리는 정인성(하늘나라예술단 대표)씨가 맡는다. 무료 관람. 문의 062-232-1501~2. /이보람기자 boram@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사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탑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